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활용하세요

'올 여름 평균폭염일수 많을 것' 기상청 전망 따라 농진청, 가축 더위 위험 시 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 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7일 당부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차단장치 점검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

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협,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뉜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자 알림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chuksaronisgok)'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 문자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로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단계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다. 축사 시설관리, 사료 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UI), 메뉴 등을 개선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응용프로그램인 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서에서 돼지를 키우는 임재철 농장주는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미리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7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모아종합건설 본사와 남양건설 본사, 허가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도내 신축 공동주택 도민 모두가 기대'

도·전건협 전북도회, 모아종합건설 등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7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모아종합건설 본사와 남양건설 본사, 허가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전북도 하도급지원팀과 협회는 이날 도내에서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시행 중인 이들 대형 건설사의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회원명부 등 관련자료를 전달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신축현장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석 하도급지원팀장은 "전북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도내 업체를 입찰에 다수 참여시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상생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하도급지원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활동을 지난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일에도 서울에 소재한 우미건설과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간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등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정기적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인·허가 및 계약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회원명부 등 관련자료를 전달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신축현장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석 하도급지원팀장은 "전북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도내 업체를 입찰에 다수 참여시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상생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하도급지원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역건설산업

/김윤상 기자

더 넓게, 쾌적하게

전은 '안행교지점' 확장 이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7일 전북은행 안행교지점을 기존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54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1층으로 점포를 확장 이전했다. 지점을 축소하는 타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이번 이전을 계기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한층 더 높은 고객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의 점포수는 3303개로 2019년말 3525개 대비 222개 줄어들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비대면 거래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권의 지점 통·폐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안행교지점은 1989년 11월 28일 개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현위치인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1층으로 확장 이전해 새롭게 고객을 맞이한다.

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임재원 부행장, 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7일 전북은행 안행교지점을 기존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54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1층으로 점포를 확장 이전했다. 사진은 확장 이전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티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직접지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박진상 이사장, 스타엔티(주)이강현 대표이사 등이 참

석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은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따뜻한 전북

은행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여성 노동조합원 권익신장·양성평등 실현'

전은노조 여성위원회 출범

창립 48주년 기념식도 개최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인호)이 48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식 및 여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1973년 6월 출범 이래 직원들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전북은행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큰 축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지난 4일 본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박흥배 위원장, 문형숙 여성위원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인호 위원장 및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여성조합원 조합활동 활성화 및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현' 과 은행의 선진 거버넌스 확립의 일환으로 여성위원회의 출범한 가운데, 초대 위원장으로 노동조합 김태희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날 여성위원회 출범과 창립 기념일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책



전북은행노동조합이 48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식 및 여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을 다하고자 전주 대안교육기관인 '한글레 학교'를 찾아 '사랑 나눔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학습 환경개선 및 교육용 물품과 생필품 구입 등에 후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인호 위원장은 "이번 나눔으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

하게 성장하는데 노조원들의 사랑과 정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신념과 함께 노동조합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며 앞으로도 선배들과 직원들의 뜻을 이어 100년 은행으로 가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깨끗한 세상 만들기'

온·오프 연계로 추진

현대차, 통기스트 런 캠페인

현대자동차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2021 통기스트 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통기스트 런'은 현대자동차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누적 참가자 약 15만명을 넘어서며 대표 친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인택트 레이스'라는 차별화된 마라톤 대회를 도입해 러너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2021 통기스트 런'은 참가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전용 앱)을 다운로드 후 달리기, 친환경 미션 등에 참여해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고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021 통기스트 런' 캠페인 '인택트 레이스'는 7월 9일부터 10일간 원하는 코스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도 '통기스트 런'은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유료 기부 참여, 유료 패키지 구매 기부 참여 또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유료 참가자의 입지 않는 의무를 기부 받고 일부는 리포에 참가 기념 티셔츠로 돌려준다. 나머지 의류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해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20일까지 '통기스트 런' 앱을 이용해 ▲의류 기부(신청수 300명) ▲유료 참가(신청수 3,000명) ▲무료 참가 중 본인이나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서부산림청, 목재수확지 일제점검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3일, 남원시 산동면 대성리 일원 국유림(2019년 목재수확지)에서 목재수확(벌채)담당자 현장토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 실시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서부청 산하 5개 관리소의 목재수확(벌채) 담당자



들이 참석, 친환경적 사업방법, 재해예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목재수확

(벌채) 감리제도 마련, 목재수확(벌채) 후 풀베기가 완료되는 시점(3년)까지 사업장에 대한 이력관리 위탁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서부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최근 3년간 목재수확(벌채)지 9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 방법의 목재수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감명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중기청, '올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물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1년 수출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스타트업 ▲브랜더스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케이·바이오(K-Bio) ▲글로벌 강소기업 등 혁신성장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정책 지원대상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출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전 수출바우처 사업은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서비스 내 국제운송서비스 분야 지원을 신설했으며, 해외개대선과 수출 계약에 맺은 상품의 국제운송 수수료 경비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모집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ucher.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